

광주 윤서영 ‘금빛 총성’·김종호 컴파운드 새 역사



속사권총 단체전 12년 만에 정상…이건혁 개인전까지 2관왕

남자 개인전서 첫 금·정하은 품새 제패…허미미 유도 첫 ‘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사격과 양궁, 태권도, 유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수확하며 메달 레이스에 힘을 냈다. ▶관련기사 19면

한국은 대회 13일 차인 1일 오후 5시 30분 현재 금메달 29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50개 등 총 10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사격 윤서영(KB국민은행)이 금빛 소식을 전했다.

광주 소속 윤서영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송종호(IBK기업은행), 이진혁(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1749점을 합작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1740점의 중국을 9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이 종목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 본선 1일 차에서 윤서영은 293점을 기록하며 전체 2위에 올랐고 한국도 873점으로 중국(870점)에 3점 앞선 선두로 출발했다. 이날 윤서영이 288점을 보낸 가운데 송종호가 292점, 이진혁이 296점을 쏘며 금메달을 완성했다.

윤서영은 함께 581점으로 개인전 결선에도 진출해 2관왕에 도전했지만 4시리에서 5발 중 1발을 명중하는 데 그쳐 6위로 경기를 마쳤다.

개인전 금메달은 함께 단체전 정상에 오른 이진혁이 차지했다.

이진혁은 결선에서 우원보관(중국)과 두 차례 쏠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종 8시리즈를 32-32 동점으로 마친 이진혁은 1차 쏠오프에서도 나란히 4발을 명중시키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쏠오프에서 우원보관이 2발에 그친 사이 5발을 모두 명중시키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속사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김준홍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사격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마무리했다.

양궁에서는 김종호(현대제철)가 한국 컴파운드의 새 역사를 썼다.

김종호는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선에서 장정웨이(대만)를 149-145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남녀를 통틀어서도 2014 인천 대회 여자부 최보민 이후 12년 만의 컴파운드 개인전 금메달이다.

김종호는 결선에서 15발 가운데 단 한 발만 9점을 기록하고 나머지 14발을 모두 10점에 쫓는 압도적인 집중력을 뽐냈다.

8강에서는 라오자하오(중국)를 143-142로 꺾었고, 준결선에서는 가네쉬 마니 라트남 티루무루(인도)를 148-144로 제압한 뒤 결선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한국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태권도에서도 첫 금빛 낭보가 전해졌다.

정하은(용인특례시청)은 도요하시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여자 개인전 결선에서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평균 9.3100점을 받아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공인 품새 지대에서 9.320점, 자유 품새에서 9.400점을 기록한 정하은은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품새는 2022 항저우 대회 차예은에 이어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전 2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1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서영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옌닝**

유도에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재일 교포 허미미(경북체육회)가 조국에 값진 금메달을 안겼다.

허미미는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57kg급 결선에서 아리운자야 테르비시(몽골)를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유도에서 나온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다.

경기 시작 12초 만에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허미미는 특기인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상대의 반격을 차분하게 막아내면서

경기 종료까지 리드를 지켜 금메달을 확정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2021년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후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여자 57kg급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허미미는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종호가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옌닝**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늘의 경기 (한국시간)

종목	내용	시간	선수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준결선	09:00	대한민국-인도네시아
테니스	남자 복식 결선	10:00	남자싱-박의성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금메달전	12:00	대한민국-대만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 준결선	13:50	대한민국-대만
축구	여자 동메달전	15:00	대한민국-중국
하키	여자 동메달전	16:30	대한민국-일본

대한민국 메달 현황 (1일 오후 5시30분 기준)			
금	은	동	합계
29	30	50	109

전남 선수단, 제주시 전국체전 메달레이스 시동

4개 종목서 메달 17개 목표 송진호 회장 현장 찾아 격려

전남도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 출전한 전남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격려에 나섰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일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배드민턴 사전경기 현장을 찾아 전남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본 대회에 앞서 배드민턴과 체조, 사아클, 탁구 등 4개 종목이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전남선수단은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3개 등 총 17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배드민턴에서는 정다환·조은빛(전남기술과학고), 김수진·조유빈(화순고), 김보민·장민윤(화순군정), 박건호·배권영(전남협회), 박정홍(전남기술과학고)·유승연(화순고), 김대은(전남협회)·공여진(화순군정)



전남도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격려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등이 복식조로 출전해 메달 사냥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배드민턴 대표팀에는 가족이 나란히 전남대표로 참가해 눈길을 끈다. 정권(전남기술과학고)·김명현(화순고) 부부 지도자가 선수단을 이끌고, 정다연(화순군정)·정다환(전남기술과학고) 남매가 선수로 출전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을 대표해 가장 먼저 전국체전의 포문을 열어준 배드민턴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배드민턴을 시작으로 오는 8일 탁구와 체조, 15일 사아클 사전

경기 현장을 차례로 찾아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선수단은 오는 8일 광주선수단과 공동 결단식을 갖고 제107회 전국체전 선전을 다짐한다. 이후 종목별 일정에 맞춰 제주에 입성해 본격적인 메달 및 득점 경쟁에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클라이밍 교실’ 운영

초등학생 20명 대상 10회 과정…신규 종목 첫선

사계절 스포츠교실 연계…겨울엔 빙상 프로그램

광주시체육회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가을 클라이밍 교실을 새롭게 선보인다.

광주시체육회는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가을 프로그램으로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클라이밍은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신규 종목이다. 시체육회는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동구 바위클라이밍센터에서 진행된 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 지도자의 강습을 통해 클라이밍 기초 기술부터 단계별로 배우게 된다. 시체육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체육회는 자치구별 체육 한

경과 형평성을 고려해 종목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시체육회는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을 통해 계절별 특색을 살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봄에는 펜싱과 양궁, 파크골프를 운영했고 여름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교실을 마련했다. 가을에는 이번 클라이밍 교실과 함께 온가족이 참여하는 스포츠캠프를 운영하고, 겨울에는 빙상교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은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은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체육 사업”이라며 “아이들이 클라이밍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가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가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라이밍 교실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장성,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서 ‘금’

금 2·은 2·동 3 획득…조정 꿈나무들 선전 돋보여

장성군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최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에 전국 38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둬 주목받았다.

먼저, 남자 18세이하부 무타페어에서 장성하이테크고 임서우, 임서준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경량급 싱글스킬에서는 임서우 선수가

1위를, 싱글스킬에선 임서준 선수가 3위에 올랐다.

여자 18세이하부 싱글스킬에서는 문향고 윤담인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남자 15세이하부 싱글스킬에선 장성중 강두영 선수가 2위에 올랐으며, 여대 및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킬에서는 장성군정 소속 김미수, 유지현 선수가 3위를 기록했다.

축하 인사를 전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젊은 선수들의 선전이 ‘조정’의 메카’ 장성군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면서

“꿈을 향한 선수들의 ‘금빛 레이스’가 거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시도별 순위는 충청북도가 152점으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광주시가 145점으로 준우승, 전남도는 131점으로 종합 3위에 올랐다.

장성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적의 경기장 환경을 갖추기 위해 힘썼으며 대회 홍보, 현장 지원 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호평받았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